

# 진안역사박물관 재개관

20여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 마쳐… 11월 30일까지 국보순회전도 개최

진안군(군수 전춘성) 진안역사박물관이 2006년 개관 후 첫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4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재개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흥준)이 주최하고, 진안역사박물관과 국립역사박물관(관장 김율립)이 공동 주관하는 2025 국보순회전 모두가 함께하는 180일의 여정 '백제명품, 백제문화전' 전시도 막을 올린다.

이에 진안군은 4일 오후 진안역사박물관 아외마당에서 진안역사박물관 재개관과 국보순회전 개막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개관 20여년 만에 새 단장을 완료한 진안역사박물관은 지금까지 진안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자료 수집과 전시, 교육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 3,000여점의 진안의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새 단장에는 총 19억원(도비 7.6억원, 군비 11.4억원)이 투입돼 부족했던 유물 수장 공간 확충과 노후 전시·편의시설 개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활용을 강화하고 편리한 관람환경 마련됐다.



진안군은 4일 오후 진안역사박물관 아외마당에서 진안역사박물관 재개관과 국보순회전 개막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보이는 수장고'는 관람객이 내부를 볼 수 있어 고고 유적 가치가 높으며, 구석기부터 근현대까지 진안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진안역사실', 웅치전투와 수선후 등 지역 대표 역사문화자원을 디자인해 영상으로 담아낸 '실감영상실'도 마련됐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2025 국보순회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백제명품, 백제

문화전'을 주제로, 백제 왕도인 부여 외리유적에서 출토된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백제문화전이 공개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재개관한 진안역사박물관과 국보순회전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들이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역사박물관이 진안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공간이자 문화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트레일레이스 100마일 코스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 남덕유산 '토옥동~월성재' 신규 탐방로 구간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일 '제6회 장수 트레일레이스'에서 첫 선을 보이는 100마일(173km) 메인 코스에 포함되는 남덕유산 '토옥동~월성재' 신규 탐방로 구간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 까지 4일간 열리는 제6회 대회를 앞두고 국내 최초이자 최장의 코스로 주목 받는 100마일 구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에서 최군수는 관광산업과, 산림과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00마일 코스 조성 및 운영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규 탐방로 구간을 직접 걸으며 노면 상태, 응급대응 체계 등 선수들의 안전 확보와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의 관광지와 산, 시골마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길을 달리고 국내 최초이자 최장 코스인 100마일 구간이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시점에는 미야산의 사계절 풍경 작품 15점이 소개되고 있다.

군 관계들은 사전에 맞춰 흥삼축제 티셔츠를 착용하고, 방문객들에게 흥보 리플렛과 기념품을 배부하며 축제를 적극 알렸다. 특히 국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미야산과 흥삼이라는 진안의 대표 자원을 함께 설명하면서, '자연과 건강을 동시에 즐기는 가을 대표 축제'라는 진안흥삼축제의 특색을 홍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국회아트갤러리서 진안홍삼축제 적극 홍보

진안군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진안홍삼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국회아트갤러리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정길웅 사진작가의 '마이산의 세계' 사진전(9.1.~9.12.)과 연계해 진행됐다. 정길웅 작가는 40여



년간 마이산의 풍경을 활용하여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기록해온 인물로, 전

## 안전한 무주반딧불축제 만든다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안전관리 실태·분야별 대응 계획 등 살펴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이 4일 무주예체문화관 등 축제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자들과 안전 전문가 등 25명이 투입돼 행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가스, 교통·차량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관람객이 집중되는 시·공간에 대한 안전 확보 △화재·사고 예방 조치 상황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점검단은 이 자리에서 △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협장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과 관리 대책 △행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대비에 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소방 분야에서는 △화기 취급 현장 관리 상태 △소화기 배치 현황을 쟁겼으며 전력 분야에서는 △행사장 전력 공급의 안정성 △전력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전선 노출 여부 상태를 점검했다.

기스 분야에서는 △가스 배관 상태와 △경보기 작동 여부 확인인 △가스 구조물의 전도 위험 여부 △안전 공기 확보 여부 등을 살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안전하고 없는 3부 축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나온 결과들은 빠짐없이 확인·조치해 믿고 오는 자연특별시 무주, 안심하고 즐기는 무주반딧불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반딧불축제 위원장을 비롯한 반딧불축제 지원단 등 관계자들은 지난 3일 밤, 축제 현장을 돌며 최종 점검의 시간을 기졌다.

이들은 무주군청 앞 미디어아트 현장을 출발해 반딧불의 향연 이 펼쳐질 사람의 다리, 주무대가 설치된 등 나무운동장, 예체문화관, 반딧불체육관, 청봉미술관 등을 돌아봤으며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 통

###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무주반딧불시장 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 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JTV전주방송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하는 가운데 군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정미애, 나미애, 진현, 최지예 등의 초대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의 흥을 둘을 예정이다.

가요제 예산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무주시장상인회(063-324-0901)로 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인기상 수상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 지원

장수군은 기존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에 이어 면역 효과가 더욱 우수한 대상포진 사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1975년생) 이상 군민이며, 2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을 받게 된다. 접종은 보건의료원 2층 예방접종실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접종 비용은 △일반 군민은 1차 175,000원, 2차 87,500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은 1차 175,000원, 2차 무료, △기존 생백신 지원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백신 구입가로 접종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사백신은 항체 생성률이 약 97%에 이르고, 효과가 10년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돼 고령층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문의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63-350-2663~2664)로 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청년농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진안군이 청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청년농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3주간 아이디어 공모 기간을 거쳐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명이 본선에 올라 지난 8월 28일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농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 6명은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위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

최종 발표된 수상자에는 △최우수상에 부귀연 이종진 농가의 '농촌 인구감소를 극복할 원스톱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이승일



농가의 '딸기 작물체 부위별 운도 측정 및 생육환경 자동조절 스마트팜' △장려상에는 신승민 농가의 '유황페드를 이용한 포도 장기저장 및 부가가치 제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벤조피렌 없는 저온 암작물 기름, 흰백나무 종류주, 드론 활용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주민 건강증진 비만 예방 프로그램 성료

무주군이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5주간 운영했던 '2025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 미무리됐다.

프로그램은 비만 예방과 체력 강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무주군보건의료원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운동처방지도자 등 전문



인력들이 체계적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무주=고판호 기자



### 지구를 사랑하게 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